



별별마을의 완벽한 하루

윤혜연 글 | 노인경 그림
문학동네 | 초등 1학년 이상

활동1 외투가 사라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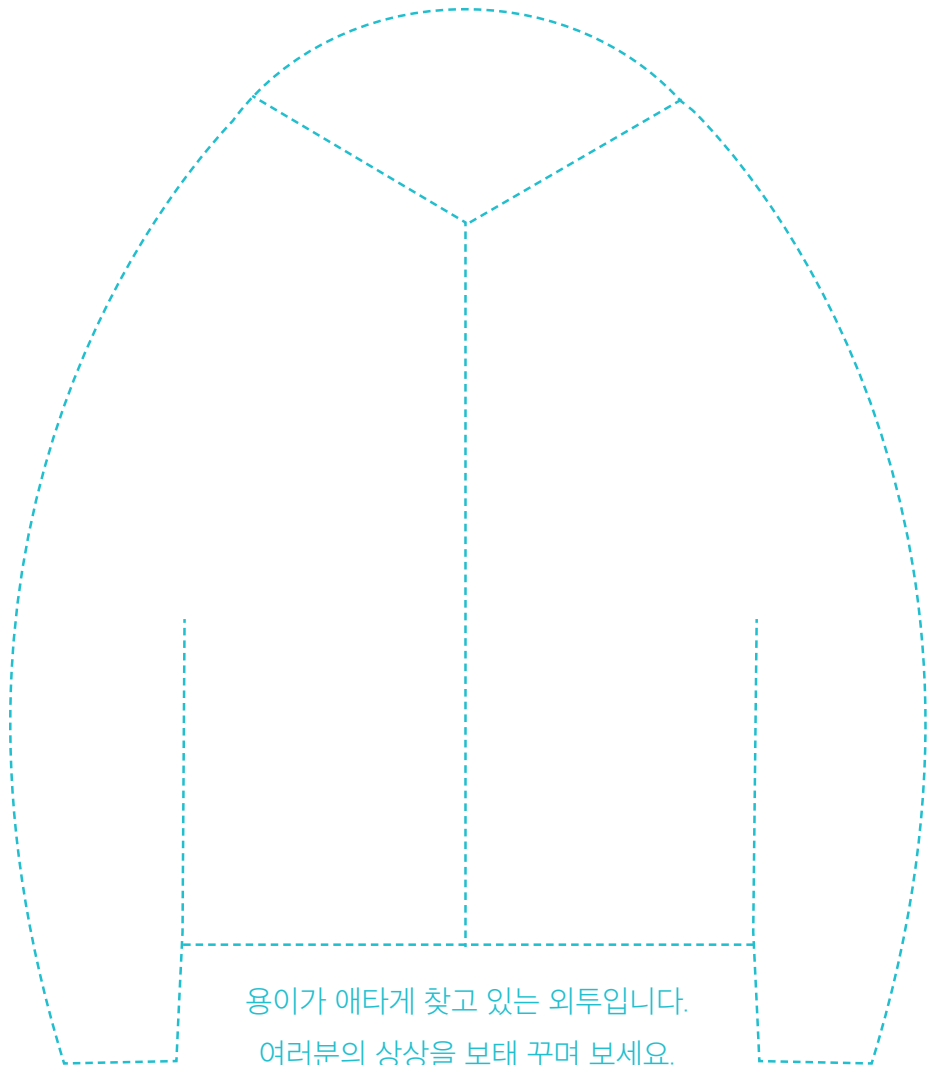
하늘이 아주 맑은 어느 날, 용이의 세 번째 외투가 사라졌어요.

철봉에 걸어 놓았는데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지요.

함께 용이의 외투를 찾아 나서 봐요.

먼저 용이의 말을 잘 듣고 사라진 외투 그림을 완성해 주세요.

“왕사탕만큼 커다란 단추가
달려 있고, 무엇을 넣어도
절대로 빠지지 않는
깊은 호주머니가 있는 외투야.”



용이가 애타게 찾고 있는 외투입니다.
여러분의 상상을 보태 꾸며 보세요.

내가 짹짹한숲에 산다면

짹짹한숲엔 여러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세모난 집엔 아주아주 예민한 불근누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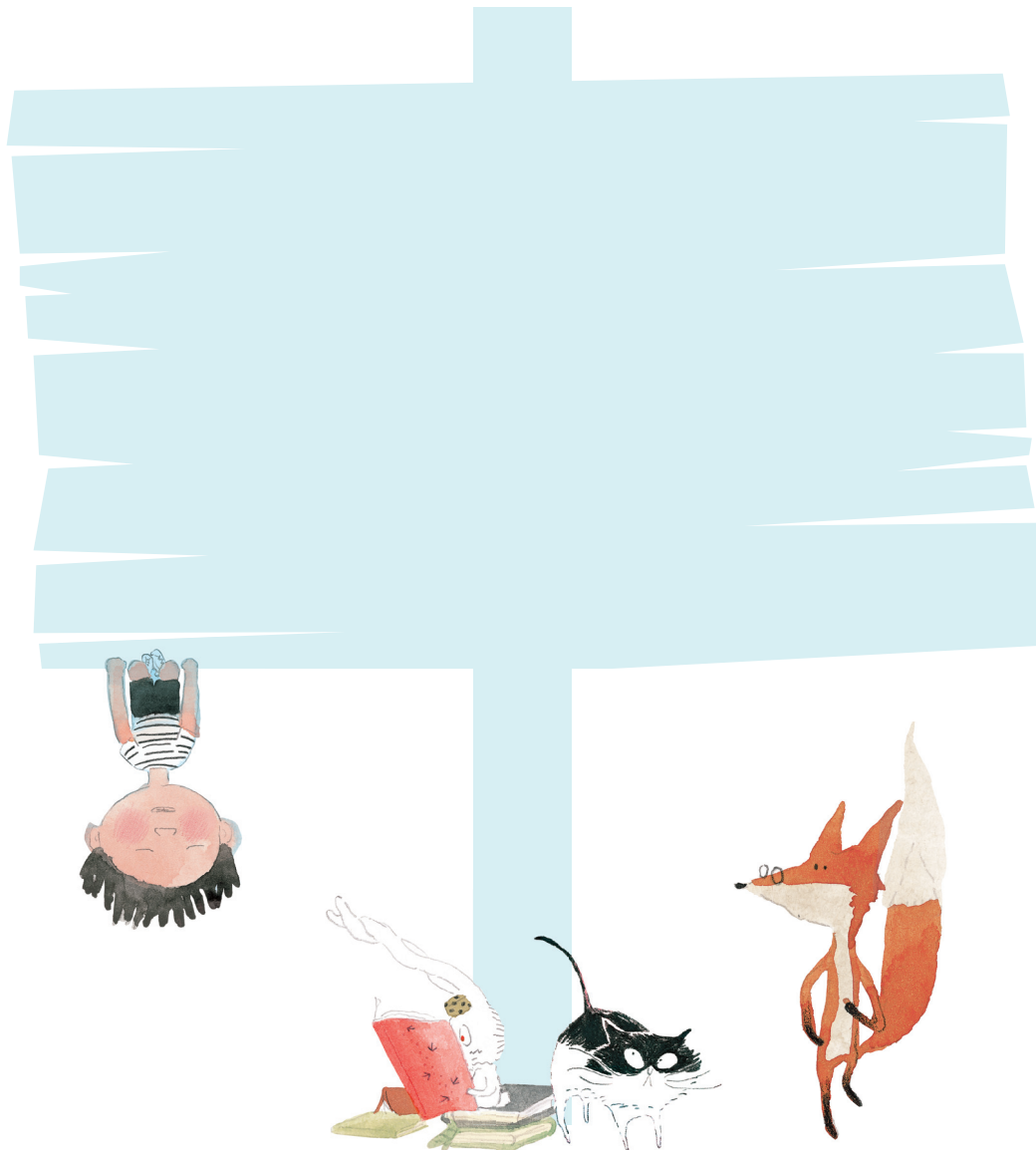
네모난 집엔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검은발이가 살고 있지요.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고 싶나요?

집 앞 안내판엔 뭐라고 적고 싶은가요?

“나는 집을 짓고 싶어.

그 앞엔 이런 안내판을 세워 둘 거야.”



활동3 깜깜한숲으로 가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보자

별별마을 사람들은 깜깜한숲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았어요.

치킨집 아저씨는 환희의 신발을, 문구점 주인은 작년에 잃어버린 고슴도치를,
별별전자센터에서 일하는 형은 오래전에 잃어버린 책을 찾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여러분도 잃어버린 무언가가 있나요? 깜깜한숲 친구들이 도와줄 거예요.

를 찾 습 니 다

무엇을 찾고 싶은가요?

언제 잃어버렸나요?

어디서 잃어버렸나요?

왜 찾고 싶나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으로 그려 보세요.





뽕이오, 뽕

김리리 글 | 오정택 그림
문학동네 | 초등 1학년 이상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추천도서
한국도서관협회 우수문학도서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권장도서
어린이도서연구회 동화동무씨동무 선정

활동1 이야기 순서대로 간추려 쓰기

이야기가 길든 짧은 모든 글에는 처음, 가운데, 끝이 있어요.

읽은 책의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아요.



①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② 가운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③ 끝이 어떻게 되었나요?

순덕이는 삼신할머니가 보낸 생쥐 덕분에

막혔던 콧구멍이 뽕 뚫려 동물의 말까지 알아들어요.

순덕이는 벌, 지렁이, 청개구리, 토끼 등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억울한 사연을 알게 됩니다.

청개구리와 토끼는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책 내용을 떠올려 말풍선을 채워 주세요. 답답한 마음을 뽕! 뚫어 주세요.



고 녀석들 맨날
말썽만 피우더니
엄니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울고 있는 것이구먼.

무슨 소리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억울해서
울고 있는 거야.



토끼가
게으름뱅이에 잠꾸러기라서
거북이랑 경주할 때
졌다든 게 참말이여?

사람들은 이렇게
뭘 모른다니까.
내가 진실을 알려 줄게.



순덕이처럼 이야기꾼이 되어 보자

“언니, 나 재밌는 이야기 하나만 해 줘.”

순덕이는 동생 순미를 위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교실에 날아든 벌, 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 송충이, 억울한 개구리, 꾀를 낸 토끼……

순덕이의 이야기 속 주인공은 누구라도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순덕이처럼 이야기꾼이 되어 옛날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참,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꼭 ‘옛날에’를 붙여서 말하는 걸 잊지 마세요!

옛날에,





삼백이의 칠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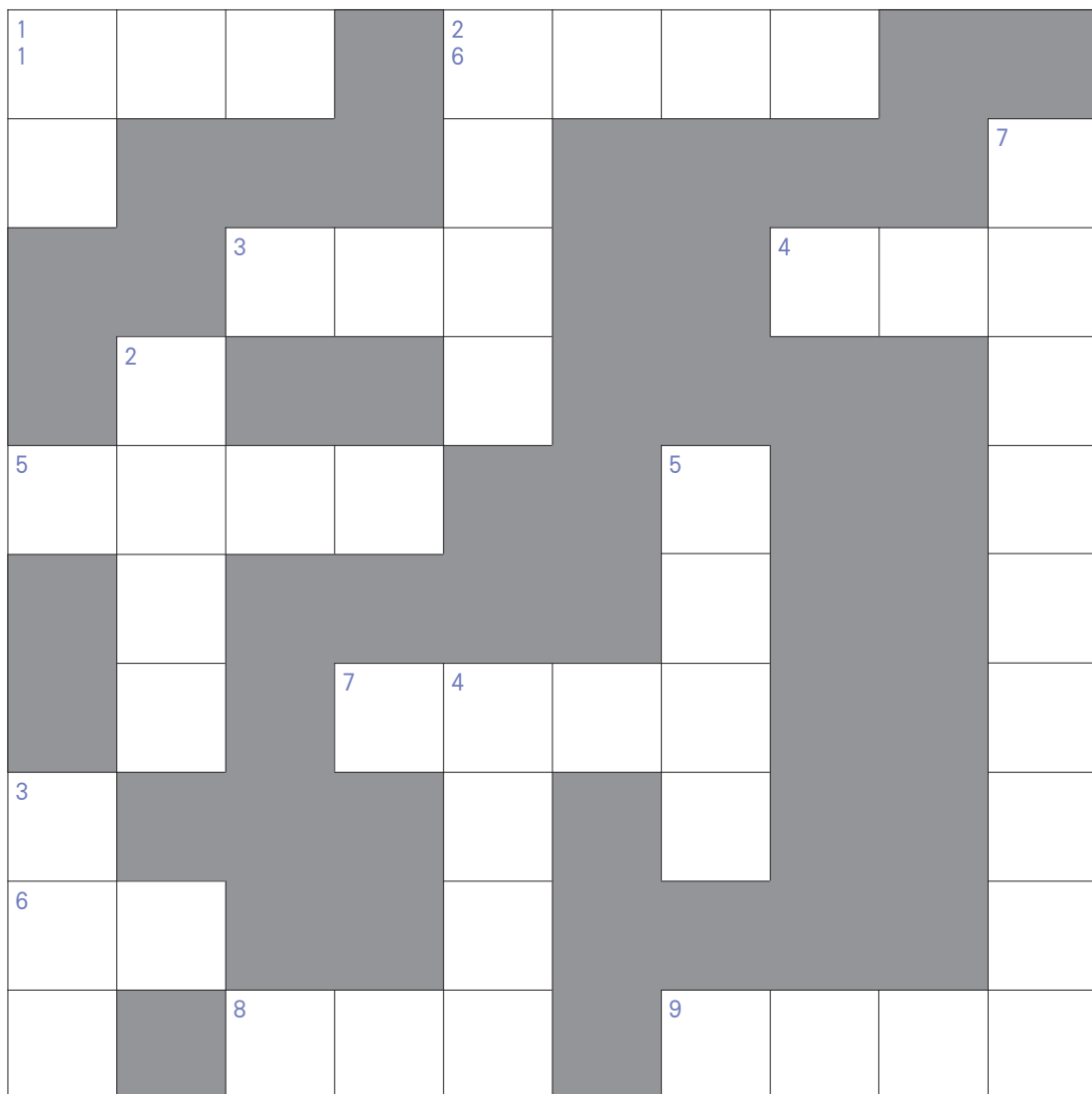
❶ 애야, 아무개야, 거시기야! ❷ 삼백이는 모르는 삼백이 이야기

천효정 글 | 최미란 그림
문학동네 | 초등 1학년 이상

제14회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대상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추천도서
어린이도서연구회 어린이가 뽑은 책

활동1 내가 <삼백이의 칠일장> 마스터! 10X10 가로세로퍼즐

책을 옆에 놓고 풀어도 좋습니다.



가로 힌트

- ① 이름 없는 아이가 묵은 집의 주인 할멈의 이름.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찾아와 “○○○, ○○○, ○○○.” 세 번 부르자 다음 날 그만...(1권 9쪽)
- ② 달걀이 없으면 밥을 안 먹던 어느 집 외동딸이 ○○○○한 입내가 나는 병에 걸렸었지. 어느 날 밥을 얻으러 왔던 거지가 딸의 병을 고칠 방법을 알려줬고...(1권 41쪽)
- ③ 딸네 집에 찾아온 거지였다가, 개장수였다가, 금강산에서 밥 지어 먹던 심마니였다가, 뱃사공이었다가, 사냥꾼이었다가, 장돌뱅이로 살아 온 이 이야기의 주인공. 이름이 없이 삼백 년을 살았는데 도롱이 걸친 늙은이와 말싸움을 하다가 이 이름을 짓고 말았지.
- ④ 폭이 좁고 호젓한 길. 안저할멈과 못저할멈이 잔칫집 가는 이 길에서 한판 싸웠지?(2권 13쪽)
- ⑤ 지는 걸 정말 싫어하던 고집불통 할멈의 이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안 져.” 하고 밤에 누워서 “내일도 안 져.” 했다.(2권 8쪽)
- ⑥ 백두산 호랑이왕의 특기였어. 한번 이것에 나섰다 하면 다들 무서워서 벌벌 떨었대.(2권 38쪽)
- ⑦ 담 큰 총각이 도깨비를 만나서 이것 좀 빌리자고 했었지. 그래서 도깨비는 짹짹이 다리가 되었어.(2권 81쪽)
- ⑧ 사람이 죽고 이레 만에 치르는 장사. 가족도 없고 동무도 없던 삼백이의 ○○○을 여섯 동물 귀신들이 치러 주었지.
- ⑨ 오색매연에게 붙들려 있던 연장군이 이것의 냄새를 맡고 집이 그리워져 돌아올 수 있었어. 구수하고 달콤한 그 냄새에는 아무도 못 버틸걸.(1권 115쪽)

세로 힌트

- ① 누구나 있지만 삼백이에게는 없었던 것.
- ② 안저할멈의 라이벌. 지기 싫어하기로는 안저할멈 못지않았대.(2권 13쪽)
- ③ 배를 부리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이렇게 불러. 게을러터지면 배를 꼬로록 가라앉힐 수도 있지.(2권 35쪽)
- ④ 잘못된 사람이 도리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에게 큰소리치는 모양을 말하는 사자성어야. 예를 들면 연장군의 짹짹이던 오색매연이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연장군에게 펄펄 뛰며 화를 낸다거나, 고등어도 뽀주리감도 양보한 먼저할멈에게 억지로 부아를 내는 안저할멈을 두고 “○○○○도 유분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 ⑤ 안저할멈이 이 감을 먹고 꾸르륵꾸르륵, 큰 일을 당했지. 모양이 가름하고 끝이 뽀족한 이 감을 보면 누구라도 군침을 흘릴걸.(2권 19쪽)
- ⑥ 달걀 좋아하던 외동딸이 이것을 삼키고 병에 걸린 거야. 달걀인 줄 착각해 이 알을 삼키는 바람에 엄마 구렁이 십년감수했지.(1권 47쪽)
- ⑦ 꼬마 시동의 말에 따르면 개에게 제일 맛있는 밥은 바로 이 밥이래. “본래 개에게 제일 맛있는 밥은 다른 개에게 ○○○○ ○○○ ○○입니다.” 이랬잖아? 멍도령은 그렇게 꼬마 시동에게 대답게 사는 법을 배웠지.(1권 87쪽)



활동2 띠지 만들기

책에 두른 띠 모양의 종이를 띠지라고 해요.
띠지에는 책을 소개하는 말을 짧막하게 담거나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은지와 그 이유를 적어요.
책 속 좋은 구절을 옮겨 적기도 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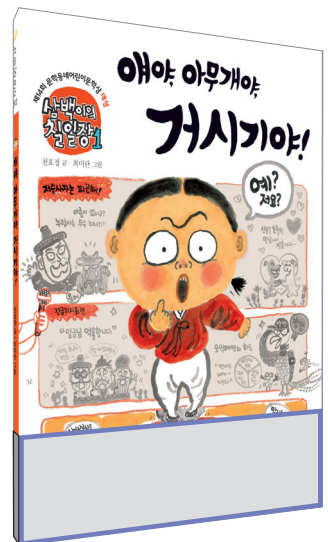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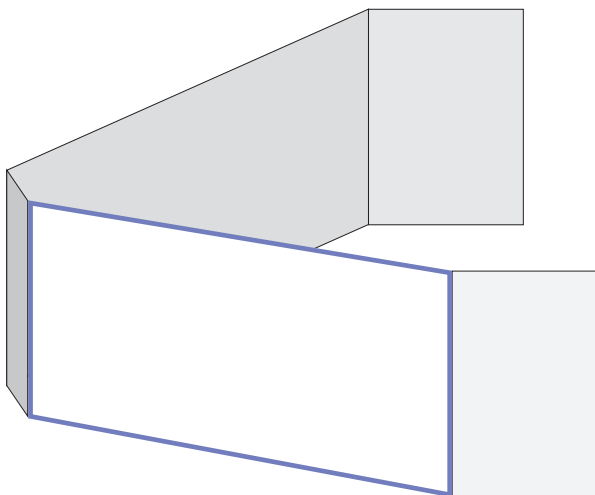
사람들은 띠지를 보고 ‘아, 이 책 읽어 보고 싶다!’ 생각해요.
‘삼백이의 칠일장’을 한 번 더 천천히 읽고 띠지를 만들어 보세요.

띠지에 들어갈 내용 생각하기

❶ 이 책을 소개합니다 :

❷ 이 책을 추천해 주고 싶은 사람 :

❸ 책 속 좋은 구절 :





* 잘라서 꾸며 보세요.



* 잘라서 꾸며 보세요.

활동3 전격 인터뷰!

삼백이의 칠일장, 두 권의 책에는 여러 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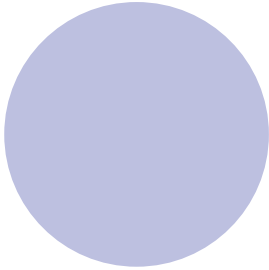
이름 없는 아이가 꼬부랑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삼백 년의 세월이니

수많은 생명들과 기막힌 인연들이 셀 수 없지요.

이야기를 다 읽고 더 궁금한 인물, 어쩐지 마음이 가는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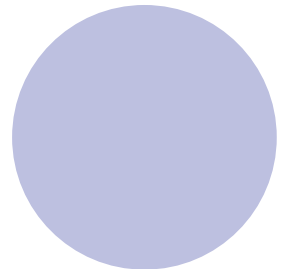
진짜 사연이 숨어 있을 것만 같은 인물을 하나 골라 인터뷰를 해 봅시다.

질문을 먼저 만들고, 그 인물이 되었다고 상상하고 답해 보세요



Q:

A:





숨은 신발 찾기

은영 글 | 이지은 그림

문학동네 | 초등 3학년 이상

제19회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수상
서울시교육청어린이도서관 권장도서

활동1 숨은 신발 찾습니다

-「숨은 신발 찾기」-

학교에는 많은 신발장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에 여러분의 신발이 들어 있겠지요.

신발이 그 자리에 잘 있을까 불안한 적은 없었나요?

태이는 그런 적이 있어요.

신발은 자꾸 신발장을 빠져나와 사라졌고

태이가 잡으려 하면 후다닥 도망을 갔지요.

① 태이의 신발은 어디를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②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신발을 그림으로 그려 보세요.



③ 신발이 나 몰래 어디를 간다면 거긴 어디일까요?

란이는 같은 반 친구 지수와 다투었어요.

지수 뺨에 손톱자국을 낸 건 실수였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란이 말을 믿어 주지 않았지요.

란이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똑, 똑, 똑.

“여기가 우리 란이 교실 맞죠?”

뽀얀 얼굴, 가느다란 눈, 새초롬한 표정을 한 여자가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① 뽀얀 얼굴이 란이를 위해 무슨 말을 했을까요?

② 여러분이 란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에게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삽화 따라 그리기

책 표지나 책 속에서 마음에 드는 그림을 찾아 따라 그려 보세요.

어떤 장면인지, 왜 그 장면을 골랐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❶ 그림은 어떤 장면인가요?

❷ 이 장면을 고른 까닭은?



와우의 첫 책

주미경 글 | 김규택 그림
문학동네 | 초등 3학년 이상

제18회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대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 선정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도서

활동1 『무지개옷을 찾아서』 1편 고쳐 쓰기 -「와우의 첫 책」-

개구리 와우는 작가 구렝 씨의 이야기를 읽고 뒤를 잇기 시작해요.

그렇게 『무지개옷을 찾아서』 1편이 탄생했지요.

앗, 그런데 인쇄소의 실수로 책의 곳곳이 지워졌네요.

여러분이 작가가 되어 이야기를 완성해 주세요.

옛날옛날에 너불이라는 뱀이 살았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사람 아이를 만났어.

그 아이가 글썄 뱀이 되고 싶다는 거야. 너불이가 아이에게 물었지.

“왜 뱀이 되고 싶니?”

그랬더니 너불이가 “무지개옷을 가져다주면 뱀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하지 뭐야.

무지개옷은 산꼭대기 깊은 동굴 속에 있는데, 그 동굴은 아주 무서운 괴물이 지키고 있다면서.

아이는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 울통불통하고, 컴컴하고, 축축했어.

한참을 갔더니 동굴 천장에서 빛이 새어 들어오는 곳이 있더라.

그 아래 검푸른 연못이 하나 있었지.

“무지개꽃은 어디 있는 거지?” 아이는 연못가에 첩퍼덕 주저앉았어.

그때 연못 속에서,

아이는 무지개꽃을 소중히 품에 넣고 왔던 길을 되돌아갔어.

그런데 동굴 입구에 거의 다 왔을 때 무지개꽃이 너무 입고 싶었대.

“살짝 걸쳐만 볼까?”

아이는 무지개꽃을 살짝 머리에 얹어 보았어. 그랬더니 갑자기



활동2 콩 손님의 정체를 밝혀라!

-「콩 손님과 국수 씨」

「콩 손님과 국수 씨」를 재미있게 읽었나요?

어느 산산한 가을, 칼국수집에 수상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이상한 콧소리를 내는 콩 손님은 칼국수를 후루룩 맛있게 먹은 뒤,

빈 그릇에 도토리를 부어 주고 떠나곤 했어요.

국수 씨는 중얼거렸지요.

“허 참, 별 이상한 손님도 다 보겠네.”

대체 콩 손님은 누구일까요?



❶ 콩 손님은 누구일까요?

❷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❸ 콩 손님의 특징이나 성격이 잘 드러나는 문장을 책 속에서 찾아 써 보세요.

(쪽)

(쪽)

(쪽)

❹ 콩 손님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려 보아요.

활동3 아파트를 꾸며 보자

-「당개 씨와 산딸기아파트」-

“페인트칠하러 왔당께요!”

반달가슴곰 당개 씨는 수레에서 페인트 통을 꺼냈어요.

산딸기나무가 빙 에워싸고 있는 낡은 아파트를 칠하려고요.

그런데 그만 급한 일이 생겨 집으로 돌아갔어요.

당개 씨 대신 여러분이 산딸기아파트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적힌 쪽지를 잘 살펴보고

아파트를 멋지게 꾸며 주세요.

산딸기아파트 주민들이 원하는 그림

5층(꼬마 산양네)

세상에서 제일 편한 의자
(엄마 거)

4층(...)

주인을 못 만남

3층(늑대 할아버지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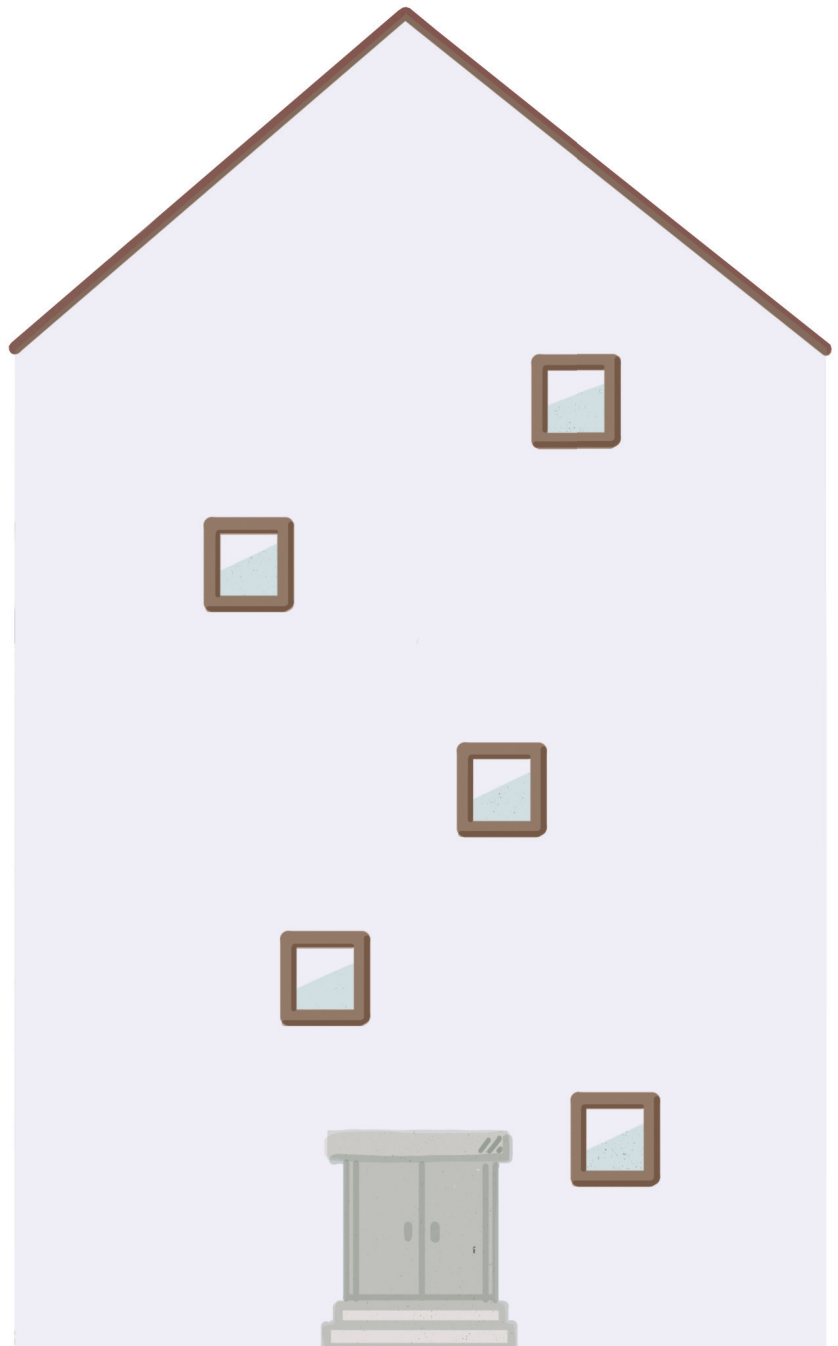
찾잔 (두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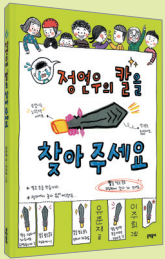
2층(멧돼지 아줌마네)

산딸기 피자 (먹음직스럽게)

1층(호두 선생님 덕)

아무거나





정연우의 칼을 찾아 주세요

유준재 글 | 이주희 그림
문학동네 | 초등 1학년 이상

2020 초등 북스타트(책날개) 선정도서
2020 아침독서 추천도서

활동1 나의 소중한 보물 찾기

이름: _____ 나이: _____

① 내 소중한 보물은 무엇인가요?

② 언제 갖게 되었나요? 또는 어떻게 함께하기 시작했나요?

③ 지금 어디에 있나요?

④ 왜 나에게 소중한가요?



내 보물을 소개하는 광고지를 만들어 보세요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이름: _____ 나이: _____

❶ 소중한 보물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를 써도 됩니다.)

❷ 언제 갖게 되었나요? 또는 함께하게 되었나요?

❸ 지금 어디에 있나요?

❹ 왜 소중한가요?

❺ 보물에 얹힌 특별한 일이 있나요?





좋은 엄마 학원

김복두 글 | 김용연 그림
문학동네 | 초등 3학년 이상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도서
한우리가 뽑은 좋은 책
전국독서새물결모임 선정

활동1 등장인물이 한 일 알아보기

「눈사람 카드」「좋은 엄마 학원」「미미가 치마를 입게 된 사연」「빠꾸기 엄마」 중에서
가장 재미있게 읽은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그 이야기 속 등장인물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적어 보아요.
이야기를 읽고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함께 써 봅시다.

①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의 제목은?

.....

② 누가 나오나요?(등장인물)

.....

③ 무엇을 했나요?(한 일)

.....

.....

④ 어떻게 되었나요?(결과)

.....

.....

⑤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느낌)

.....

.....

.....

활동2

‘좋은 학원’ 광고 만들기

—「좋은 엄마 학원」

엄마는 다정이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해요.

엄마에게 불만 가득한 다정이는 신문 광고를 보고 ‘좋은 엄마 학원’에 엄마를 보내 버려요.

일주일 후 엄마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서 돌아오지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좋은 학원’ 광고를 만들어 보아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도 좋고 대통령처럼 누구나 다 아는 사람도 좋아요.

를 마음껏 채워 보세요.

좋은 학원

① 에게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② 이런 것을 배웁니다!

1교시 :

2교시 :

3교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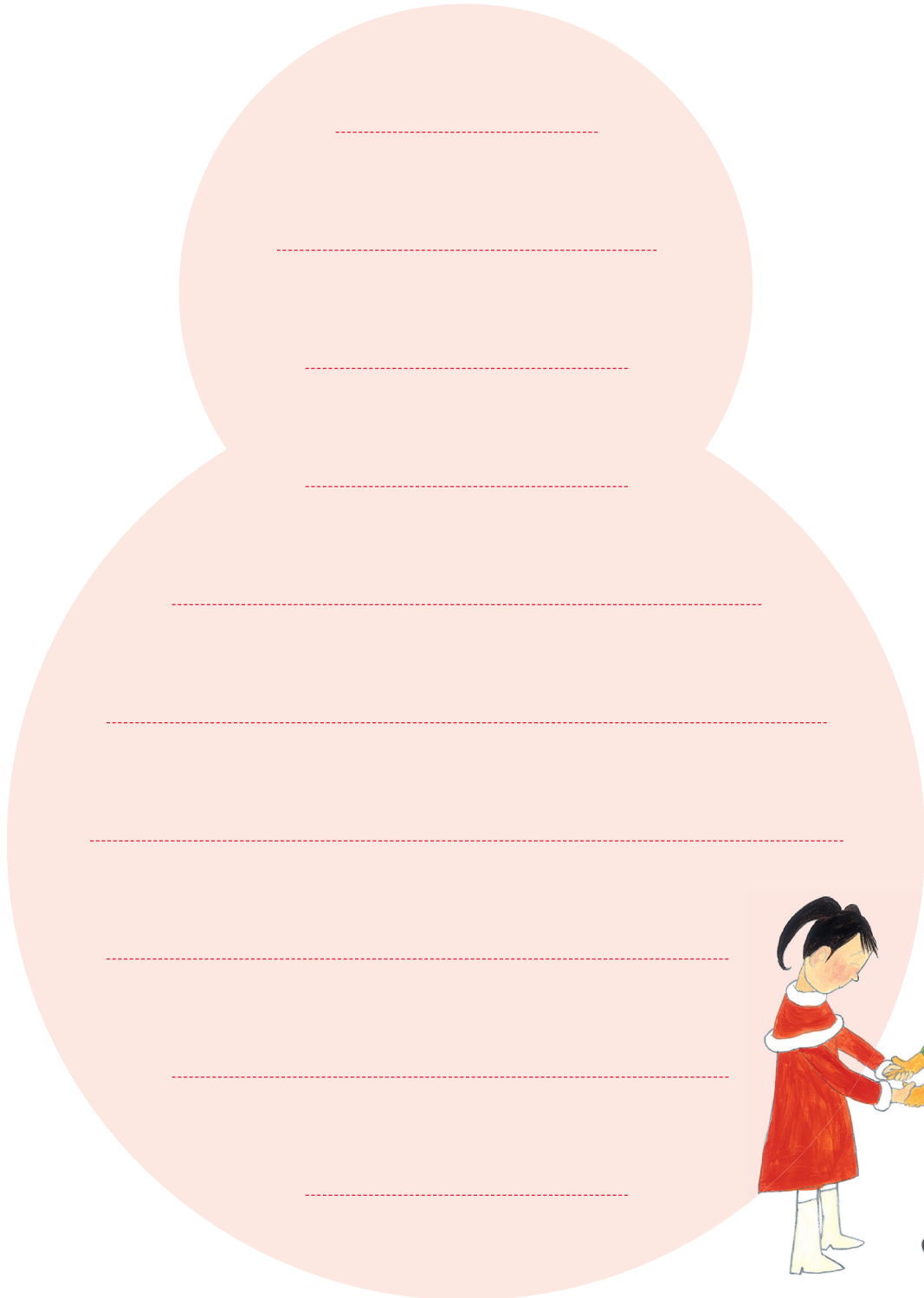


활동3 마음을 전하는 글 - 「눈사람 카드」

미나는 명숙이의 이름을 빌려 진만이에게 카드를 씁니다.

그 사실이 밝혀질까 봐 가슴을 졸이기도 하지요.

눈사람 카드에 마음을 담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건네 보아요.



A large, light pink, stylized snowman shape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The snowman has a round head and a larger, rounded body.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snowman's body.





콩이네 옆집이 수상하다!

천효정 글 | 윤정주 그림
문학동네 | 초등 1학년 이상

2-2 국어 교과서 수록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

활동1 등장인물 별명 짓기

엄청 작아서 딱 강낭콩만 한 **생쥐 콩이**
뒤에서 남 홍보는 걸 좋아하는 **하얀 두더지 뽀**
언제나 비비 꼬아 말하는 **청개구리 씨니**
씨니의 마음을 한 방에 녹여 버린 **두꺼비 떡두**

『콩이네 옆집이 수상하다!』에 등장하는 친구들 중 하나를 골라

별명을 지어 주세요.

특징을 살려 그림으로 그려도 좋아요.

① 이름 :

② 특징 :

③ 내가 지은 별명 :

④ 그 이유 :

콩이네 옆집에 무슨 일이?



“이게 뭐지? 누가 이사 왔나?”

풀숲 아래에 못 보던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콩이는 구멍 주변을 빙글빙글 돌았어요.

콩콩 냄새도 맡아 보았지요.

그런데 갑자기 구멍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드르륵드르륵! 사그락사그락!

구멍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구멍 속 장면을 상상해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활동3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아요

누구나 부족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어요.

이야기 속 인물들의 모습이나 성격, 말투, 습관을 떠올려 보고 좋은 점을 찾아보세요.

나의 특징도 솔직하게 적어 보세요.

콩이는 산만해 보여도 다른 사람 말을 잘 믿어 줘요.

백은 남 홍보기를 즐기지만,

씨니는 알뜰게 비비 꼬아 말하는 버릇이 있지만,

떡두는 눈치가 없긴 해도,

강군 아저씨는 얼굴에 난 상처 때문에 건달이라는 소문이 돌지만

나는

.....

.....





콩푸 아니고 똥푸
차영아 글 | 한지선 그림
문학동네 | 초등 1학년 이상

제17회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수상
여성가족부 추천 나다움어린이책 '다양성' 부문
어린이도서연구회 동화동무씨동무 선정
천안시 한 책

활동1 꼭꼭 간직하고 싶은 말 찾기

『콩푸 아니고 똥푸』에는 소리 내 읽을수록 웃음이 나오는 말,
불끈불끈 힘이 솟아나는 말, 마음이 뭉클해지는 멋진 말이 잔뜩 나와요.
내 마음에 드는 문장을 찾아서 적고 그 이유도 말해 보아요.

「콩푸 아니고 똥푸」에서 간직하고 싶은 말



「오, 미지의 택배」에서 간직하고 싶은 말



「라면 한 줄」에서 간직하고 싶은 말





내가 택배를 받는다면

언제부터가 어른인 걸까요? 아홉 살 미지는 분명히 정해 두었습니다.

자기 앞으로 온 택배 상자를 받게 된다면! 바로 그때부터가 어른인 거라고요.

미지의 첫 택배는 봉자가 보낸 ‘대단하고 엄청나고 놀라운 운동화’였어요.

나의 첫 택배는 무엇이었으면 좋겠나요?

마음껏 상상해 보고 그 택배의 제품 설명서를 써 보세요.

보낸 사람:

받는 사람:

제품 설명서

제품명:

기능:

사용 방법:

주의 사항:

활동3 내 마음속 풍경 그리기

눈을 감고 탄이와 미지, 라면 한 줄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장면이 생각나요? 책을 읽고 난 내 마음속 풍경을 그림으로 그려 보아요.

이야기 속 한 장면이어도 좋고, 이야기엔 나오지 않는 장면을 상상해서 그려도 좋습니다.



하루와 미요

임정자 글 | 박세영 그림
문학동네 | 초등 1학년 이상

3-1 국어활동 수록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도서
볼로냐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선정

활동1 하루에게 편지를 써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강아지 하루」-

“날 보러 와. 날 보러 와.”

작디작은 강아지 하루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속삭임에 집을 떠납니다.

쌔애앵 트럭이 오가는 한길, 집어삼킬 듯 흐르는 냇물을 지나
무섭기로 소문난 개가 사는 과수원까지. 처음 나선 길은 험하지만 하루는 달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강아지 하루에게 편지를 써 보세요.

잘한 점을 칭찬하거나 궁금한 것을 물어보아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강아지 하루에게

① 첫인사, 자기소개

② 하고 싶은 말

③ 끝인사

④ 날짜, 편지 쓴 사람



활동2 미요와 이야기를 나눠요

-「세상에서 가장 겁 많은 고양이 미요」

“오기만 해. 오기만 해.” 찰랑대는 물결은 으름장을 놓고,

“고양이가 헤엄이라니!” 친구들은 미요를 비웃습니다.

미요는 물오리 과과의 응원에 힘을 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멋지게 헤엄을 친 미요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말풍선을 채워 보아요.

나 헤엄치는 고양이라니. 미요는 정말 대단해!

처음에는 당장 그만두고 싶었어. 저수지는 생각보다 깊고 어두웠거든.

미요

나 그렇구나. 무섭고 힘들었는데 왜 헤엄을 치고 싶었어?

미요

나 미요는 헤엄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어떻게 했어?

미요

나 도전에는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하구나. 과과는 미요가 힘들 때 어떤 말로 응원해 주었어?

미요

나도 미요처럼 도전하고 싶은 일이 있어. 뭐냐면

나

네가 해낸다면 정말 멋진 거야. 미요옹!

미요



활동3 소개해 보기

털보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강아지 하루」와
「세상에서 가장 겁 많은 고양이 미요」 두 편에 다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털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미요에게 하루를 어떻게 소개했을지,
하루에게 미요를 어떻게 소개했을지 적어 보세요.

하루를 소개할게.

미요를 소개할게.
